

Robert Vannoy , Exodus to Exile, 강의 9A

사사기

검토

IV. D. 사사기의 구조와 내용 2. 사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신학적 근거 사사기 2:6-3:4

지난 주에 우리는 사사기에 있었고 로마 숫자 IV까지 내려갔습니다. D. , “ 사사기의 구조와 내용.” 세션이 끝날 무렵 우리는 IV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D. 2., “사사기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한 신학적 근거: 사사기 2:6-3:4.”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두 개의 서론과 두 개의 결론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서론은 사사기 1:1-2:5 책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기간의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약속한 대로 지파들이 그들의 지파 소유물에 정착하기 위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미에는 지파들이 정착하여 자신들의 영토 정복을 완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사사기에 이어지는 내용의 역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서론은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합니다. 2:6-3:4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 그 온 세대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후에 또 한 세대가

났으니 그들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붙이시니 그들이 압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16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지난 시간의 끝에서 나는 죄를 짓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이 주기, 즉 바알 숭배에 뒤이은 압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주기에서 특정한 회개 요소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재판관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세 번째 요소가 정말 회개인지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신학 서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 A. 사사기 신학 1. 이스라엘의 배도 2. 하나님의 신실하심 3. 사사기 주기 - 반역, 보복, 회개, 구원 내가 “사사기 신학”이라는 유인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질문을 다루는 단락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833쪽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신학적 주제”에서 2번입니다. 831쪽에 있는 1번은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따라서 책의 주제에 관한 한 당신은 이스라엘의 배교를 가지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표시를 얻습니다. 833 페이지 상단의 제목 아래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응과 회개와 구출.” 이것이 네 가지 요소의 순환입니다. 이를 네 가지 “R”로 생각하면 반란, 보복, 회개, 구조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11-19을 자세히 살펴보면 프롤로그에 회개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배교에 대한 보복이 14장과 15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즉시 “그 때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저희를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16절)가 이어집니다. 보복과 구원에 대한 묘사 사이에는 회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회개 요소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주기에 회개 요소를 삽입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반복되는 진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함 속에서.” 웃니엘의 때에 3:9을 보라. 사사기 3장 9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저희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까?

조금 더 가자. 3:9은 웃니엘의 때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은 에훗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주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다른 모든 참고 문헌을 읽는 데 시간을 들이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에훗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드온 시대의 6장과 7장, 4:3의 드보라 시대와 입다 시대의 10:10이 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요소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기 10장 10절을 읽고 싶습니다. 입다 때인 10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나이다.” 사사기 10:10에는 회개의 진술처럼 보이는 명백한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부 해설자들은 프롤로그에 보고된 주기와 심사위원들의 이야기에 나타난 주기 사이의 이러한 겹보기 불일치가 프롤로그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작가에게서 왔다는 증거라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서로 다른 출처나 층 사이의 갈등의 긴장을 발견하는 주류 성경 연구입니다. “이 결론은 부분적으로 ‘외치다’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한다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그러나이 가정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외치다’인 *za'aq*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깊은 고통에서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을 암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르짖음이 회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10:10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그 효과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진술 때문에 이것이 분명합니다.” 즉, 회개의 개념은 *za'aq*이라는 용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외치다.”

회개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러므로 중요한 신학적 통찰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일으키셨을 때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 측의 어떤 회개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출하심에서 보이는 것은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신학적 주제 아래 있습니다. “야훼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비참함과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 그의 백성에게 반복해서 사랑과 자비로 행동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 대부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 “사사기를 보면 야훼의 구원이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억압의 때와 안식의 때는 회개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자비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셨고, 그들을 멀하지 않으셨으며(그분은 정당하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비롭게도 그들을 거듭 불러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7-28절의 맨 아래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큰 공황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사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주의 목전에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여러 번 그들을 구원하셨나이다 . ” 그래서 저는 회개의
 요소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것은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언약적
 신실함의 증거였습니다. 2. “사사기 이야기의 적절한 이해를 위한 신학적
 근거” 아래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3. 대법관과 부법관의 이야기 개요의 3번은 “대법관과 부법관의 이야기
 ”입니다. 3. 가. “대사관 및 부사사”입니다. 슬라이드 인쇄물을 보면
 검은색으로 여섯 명의 주요 사사가 웃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
 삼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밝은 음영 색상에는 6명의 마이너 심사위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책 본문에는 6명의 대판관이 언급되고 6명의 소판관이
 언급됩니다. 전공과 부전공의 구분은 단순히 우리가 자세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에 근거합니다. 소판사들의
 참고문헌을 보면 삼갈은 3:31; 그것은 한 구절입니다. 3:31 을 보면 삼갈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 그도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삼갈, 돌라, 야일, 입산 , 엘론, 압돈 에 대해 우리는 그들에 대해
 기껏해야 세 개의 구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함께 Ehud는 그리 길지 않지만 Deborah와 Barak에 대한 두 개의

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드온을 위해 세 장을 얻습니다. 입다에 대한 세 장의 일부가 있고 삼손에 대한 네다섯 개의 장이 있습니다.

재판관 또는 인도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 본문에서 판사 대신 인도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은 "Judges"보다는 "Deliverers"가 더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활동에 관련된 이들 중 한 사람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드보라입니다. 여기서 4:4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도"는 "판단하다"를 의미 하는 동사 *shaphat* 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때에 이스라엘을 재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 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벵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받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쟁투를 해결하니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법정을 열고 분쟁을 중재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사와 연관시키는 종류의 활동입니다.

"판사"라는 용어를 들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법원에 상주하는 일종의 사법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hin p e tet* 이라는 용어의 사용법을 살펴보십시오. 동사 형태는 *shaphat* 이며, 여기에서 명사 형태가 파생됩니다. 단어의 용법을 살펴보면 분쟁을 해결하거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법 활동이라는 협소한 개념보다 사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BDB 사전에서 어근을 찾아보면 “통치하다, 관리하다, 지도력을 발휘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사들”은 실제로 부족의 통치자 또는 부족의 지도자였습니다. NIV가 그것을 번역하는 방식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판단하다”가 아니라 “이끌다”로 번역한다는 것을 더 자주 발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사무엘상 8장에 들어가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NIV의 사무엘상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 그것은 *shaphat* , “우리를 인도할 왕” 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판사들은 종종 “인도자”라고 불립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9 에서 당신은 웃니엘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은 “구하다” 또는 “배달하다”를 의미하는 *yasha* 에서 온 것입니다. 3장 15절 에훗을 보면 “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구원자를 보내셨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 : 14-15을 보십시오. 그것은 기드온에 관한 것입니다 . 사사기 6:36; 7:2; 10:12-14 그리고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부족 지도자 또는 재판관 중 6명과 부차적인 6명이 있습니다.

B. 4명의 뛰어난 심사위원에 대한 간략한 논평

비 . 귀하의 개요에는 “뛰어난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간략한 의견” 이 있습니다. 내가 열거한 네 사람은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입니다. 먼저 사사기 4장과 5장에 묘사된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와 벵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6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바락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피리라 하신 여호와의 명대로 납달리와 스불론 일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 산으로 가라고 청하였다고 합니다 . - 야빈은 북쪽의 매우 중요한 도시인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말씀을 납달리에게 전하지만 바락은 마지못해 6절에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요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러티브의 그 시점에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갈 것이고 그녀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에게 넘겨주실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읽어보면 13절에서 시스라가 900대의 강력한 병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에게는 병거가 없습니다 .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드보라는 14절에서 바락에게 말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행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야훼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는 신성한 전사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로 패하게 하시므로 시스라가 그의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하니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탈출을 시도하고 텐트를 찾습니다. 17절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가족과 우호 관계가 있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 그녀는 나가서 그에게 매우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목이 마르다고 말했습니다. 19절에 “물 좀 달라” 하니 그녀가 그에게 우유를 줍니다. 장막에 들어가 이르시되 20절 누가 와서 여기 누가 있느냐 물거든 아니오라고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야엘입니다. 21절을 보면 드보라가 아닙니다. 그녀는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를 박아 땅에 박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날에 하나님[야엘이 야빈을 굴복시켰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셨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압제에서 구출하기 위해 사용하신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4장입니다. 5장은 이와 동일한 사건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5장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문학 작품입니다. 나는 24절을 읽고 5장의 맛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5장 24절을 읽으십시오 . . 그는 물을 달라고 했고 그녀는 그에게 우유를 주었다. 그녀는 귀족에게 어울리는 그릇에 응고된 우유를 가져다주었다. 그녀의 손은 천막 말뚝에 닿았고 오른손은 일꾼의 망치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부수고 산산이 부수고 그의 관자놀이를 찢었다 .” 이 시적 평행법을 통해 더욱 강력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발 앞에 주저앉았다, 넘어졌다, 거기 누워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발치에 가라앉았고, 떨어졌고, 거기에 가라앉았고, 거기에 떨어졌고, 죽었습니다.”

5:28에서 장면이 바뀌고 다시 시스라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창문을 통해 시스라의 어머니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창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왜 그의 병거 소리가 더디느냐? [그녀는 걱정한다.] 그녀의 가장 현명한 숙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그녀는 속으로,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 나누지 않느냐? 한 남자당 한두 소녀, 시스라를 위한 화려한 옷, 수놓은 화려한 옷, 내 목을 위한 수 놓은 옷, 이 모든 것을 노략물로 삼았느냐?’ ” 물론, 아이러니한 점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계속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차게 뜰 때와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은 사십 년 동안 평화로웠다.”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의 압제와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주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2. 기드온

두 번째 이야기는 사사기 6-8장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압제자들은 광야에서 온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남쪽과 동쪽에서 요단 강 건너편에서 와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약탈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오브라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11절에 “여호와와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거기 는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게 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짜던 곳이라” 오브라 의 위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곳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계 근처, 다시 북쪽 지파 지역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6:12에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냐 하던 그 모든 기사가 어디 있나이까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네게 있는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커미션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항의합니다. 15절에서 기드온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일제히 모든 미디안 사람을 치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6장 17절에서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기드온이 제단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에 손을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떡을 살랐더라” 고 했습니다. 22절을 보면 “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노라!” 이제 천사는 그에게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25절에 나오는 바알 제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꺾었습니다. 기드온은 밤에 그렇게 했습니다. 27절을 읽으십시오 . 그리고 그 여파로 36절로 내려가십시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온 땅이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 ” 그러자 그는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합니다. ”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기드온은 다음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가 양털을 짜고 이슬을 짜내니 물 한 그릇이 되더라.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나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양털로 한 번 더 테스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을 말리고 땅에 이슬을 내리게 하여라.'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랐다. 온 땅이 이슬로 덮여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 Dan Bloch는 지난 주 New American Commentary 시리즈의 사사기에 관한 그의 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272 페이지의 양털 구절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설명을 합니다. 놀라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권능을 받고 수많은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망설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징조를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 네가 약속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의 군대를 사용하여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한 그의 시간입니다. 36-37절에서 두 번 나타나는 나중의 표현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결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나는 기드온의 양털 한 뭉치를 꺼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지 지켜보고 그렇게 하시면 그분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Bloch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결정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마음에 완전히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기드온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제한된 경험으로 하나님이 항상 그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표징이 아니라 불신앙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받고, 그의 동포들의 압도적인 반응과 전투에 대한 자신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가 부름 받은 사명. 이 양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다루실 때 너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경우에 극도로 주저하는 전사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드온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반응을 어떻게 보았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 7장에 이르면 주님은 2절에서 “너희에게 사람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을 작은 것에도 일종의 미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제거하고 싶고 어떻게 든 더 작은 것이 좋습니다.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점은 2 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은 막강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분은 주님이시며 주님은 그것에 대해 어떤 혼란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였다고 나를 거슬러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거든 이제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전투에 임하려고 합니다. “두려우면 면제받을 수 있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떠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 사람이 너무 많도다 그것들을 물가로 데려가십시오. 내가 거기서 당신을 위해 그것들을

걸러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는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구별하라 하시니 300명의 남자가 손을 입에 대고 핥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무릎을 꿇고 술을 마셨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핥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하시고 ”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승리가 올 때 승리를 주신 분은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16절에 보면 “ 삼백 명을 세 떼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향아리를 들리고 횃불은 그 안에 있게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조심해’ 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 나를 따르라. 내가 캠프 가장자리에 도착하면 내가 하는 대로 정확히 해. 나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 진영 사방에서 너희는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 손에 있던 향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서로 싸우기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8장에 나오는 미디안의 지도자 세바 와 살문나 는 도망쳤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그들을 추격했고 8장 12절에서 그들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길을 따라 그들은 숙곳이라는 곳으로 갔다. 5절 에서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닳아 없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디안 왕 세바 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 숙곳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기드온과 동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 숙곳의 신하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미 세바 와 살문나 의 손을 가졌느냐 ? 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 그들은 세바 와 살문나가 도망하여 돌아올까 두려워 하고 숙곳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백성을 도운 것을 알게 되면 제 바와 살문나가 그들에게 복수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13절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드온이 숙곳 청년을 붙잡아 심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은 그 성읍의 장로들인 숙곳의 고관 77명의 이름을 그에게 적어 주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숙곳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돌아가서 그들이 도중에 그를 돕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부업은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임의의 개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쓰기가 꽤 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 그 성읍 장로들을 데려다가 들가시와 짚레로 숙곳 사람들을 징계하여 교훈하니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찍과 가시덤불과

찔레로 때린 것 같습니다. “...그가 또한 브니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더라.” 그것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1b절에서 당신은 기드온이 또한 제 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벗겼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지휘 아래 적은 수의 군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여파로 22절과 23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십시오. 저는 이 두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중에 다시 올거야. “ 이스라엘 자손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라 ... 왜? ” ...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 기드온의 반응은 전적으로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23절 에 “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 ” 나는 기드온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승리를 돌립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승리를 거둔 분은 주님이셨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돌아가면 바로 이 서두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이 자기를 구원하였다고 나를 거슬러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게 있는 이 수의 군사를 삭감하라.”

이제 이 기드온 이야기에 대한 또 하나의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이 승리를 가져온 지도력을 제공했지만, 기드온은 그의 생애 말년에 이스라엘을 어떤 형태의 우상숭배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결함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내가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으니 각각 탈취한 것 중에서 귀고리 하나씩 내게 주라” 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가 금 1,700세겔을 모았다고 읽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의 성읍 오브라 에 두었더라 .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숭배하여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에봇”이라는 용어의 성경적 용법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관련이 있는데, 그 옷은 만드는 데 매우 비쌌습니다. 에봇을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 28:6-12에 있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비슷한 것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뭉을 들고 있었던 것은 주머니에 있는 에봇과 관련이 있었다 . 우림과 둠뭉은 신성한 신탁을 받는 수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신성한 신탁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불법적인 수단을 원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의 에봇이 어떤 종류의 이미지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Dan Bloch는 주석에서 부분이 전체를 나타내는 제유법 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해석에서 에봇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형상의 의복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또한 그 위에 의복이 드리워진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이요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호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27b절에 “온 이스라엘이 음란히 이 에봇에게 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왕권

장의 끝 30-31절에는 다음 장의 주역이 되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세겜에 사는 기드온의 첩이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 죽어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 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들에게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9장의 주제입니다. 전체 장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되고 그 결과 세겜은 결국 멸망하고 아비멜렉은 죽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의 이야기의 결과는 매우 엇갈립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았고 기드온은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일종의 이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은 가나안 땅의 가나안 도시국가 왕의 형상으로 더욱 '왕' 이 되었고, 그로 인해 재앙도 초래되었습니다.

3. 입다와 그의 서원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세 번째 사사는 사사기 10:6-12:7에 나오는 입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의 압제를 받습니다. 10장 6절을 보면 “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 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는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팔았습니다. 18년 동안 그들은 아모리 사람의 땅인 길르앗에서 요단 강 동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압제했습니다 .” 따라서 당신은 그 땅의 북쪽과 동쪽에 있으며 주요 문제는 요단 강 동쪽의 길르앗에 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돕이라 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갈 입다라 하였더라 그는 라못 길르앗의 동북동쪽 같은 지역에 있는 도시인 돕에 살고 있었습니다 . 11장 1절을 보면 “그는 큰 용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요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으므로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3절에서 그가 도망하여 돕 땅에 정착했다고 읽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도록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입다는 그들과 흥정하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입다는 말합니다 .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라 우리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 더라 그래서 그는 암몬 족속과 싸우는 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그들과 대화할 협상가 몇 명을 보내 암몬 사람들이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땅에 대한 역사적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1장의 다음 부분에서 27절까지 내려가면 암몬 왕이 입다가 보낸 소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그들과 싸우기로 결정하지만, 그 전에 서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입다 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것입니다 . 11장 30절에 “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을 치고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번제로 드리리이다’ ” 그가 나가서 싸우다가 암몬 사람을 이기고 34절에 “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소고 소리에 맞춰 춤추며 딸 외에는 그를 맞으러 나올지라” 고 했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그녀 외에는 아들도 딸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옷을 찢으며 ’오! 내 딸!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 것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녀는 ’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대적 암몬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으니 네 말대로 내게 행하라 하지만 이 한 가지 요청을 들어주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 언덕을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두 달만 주세요. 저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 가도 좋다’ 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두 달 동안 보내주었습니다. 두 달 후에 그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서원한 대로 하셨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읽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입다가 그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 딸을 희생했습니다. 그 이해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나는 그것이 텍스트를 읽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있는 55페이지의 인용문을 보십시오. 이것은 Tyndale 구약성서 시리즈에서 Cundall과 Morris의 사사기와 룯기 주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입다 가 동물 희생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의 딸이 그를 맞이하러 왔을 때 놀랐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오는 사람 집’ 은 의도된 인간 희생을 가리켜야 합니다 . 이것은 입다 편 에서 헌신의 행위 , 그를 통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의도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가 모세의 유전에 더 정통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신성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료되어서는 안 됩니다. 홀 주교가 관찰한 바와 같이 ’서원하는 것은 그의 열심이었고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은 그의 죄였습니다.’ ”

하지만 56면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 본문의 평범한 의미를 약화시키려는 선의는 있지만 그릇된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중세 시대가

되어서였습니다. 깨달은 마음의 감수성은 특히 이스라엘의 한 재판관에 의해 그러한 행동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영원한 동정으로 감형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일부 사람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영원한 순결은 형벌이지 그녀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의 처녀성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이 사건의 비극을 지적하기 위해 추가되었으며 완료 시제는 히브리어에서 종종 ‘그녀는 없었다.’ ‘그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다’는 명백한 진술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누군가는 그가 딸을 바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본문은 분명히 그가 딸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것을 읽는 가장 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들은 31절을 읽습니다. NIV는 “그리고 나는 그들을 번제물로 바칠 것이다”라고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와우*를 “또는”으로 번역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바친 짐승이나 양이나 염소나 닭이나 무엇이든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머지 문맥과 잘 맞지 않으며 원본을 읽는 일종의 긴장된 방법입니다.

4. Samson - Webb의 RTR 기사 제가 토론하고 싶은 다음 판사는 Samson입니다. 그것은 사사기 13:1-16:31, 즉 13-16장입니다. 나는 Samson을 위해 텍스트를 통해 작업하는 것보다 이 유인물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Reformed Theological Review* 에서 Barry Webb이 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기사의 일종의 간략한 이력서입니다 . “삼손 이야기에 대한 진지한 독서”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기사의 일종의 시놉시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웹은 “삼손의 이야기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복음주의 강단과 주일학교 수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덕화에 쉽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 인물들로부터 삶의 예를 얻으려고 한다면 아마 그것들을 찾기 위해 삼손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주 많은 요점은 아니지만 몇 가지일 것입니다. 대안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삼손을 성경의 슈퍼맨으로 보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안이 아마도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웹은 삼손 이야기의 본질적인 신학적 특성을 인식하고 그것이 정경적 맥락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는 진지한 읽기를 요구합니다. 그는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중요한 6명의 주요 사사에 대한 중앙 부분의 끝 부분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4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위치와 삼손에게 주어진 공간 때문에 Webb은 “우리가 이 에피소드의 요점을 놓치면 사사기 전체의 요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1. 첫 번째 악장 내러티브 구조에 관한 한 Webb은 세 가지 악장으로 전개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 소라 에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라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으나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 그리고 두 번째 예언: 그 아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2절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13:1-4에서 성취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더라.” 두 번째 예언인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을 시작할 것이다” 는 14장에서 16장에 걸쳐 있는 두 개의 주요 내러티브 운동에서 점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악장 중 첫 번째 악장은 내러티브의 세 악장 중 두 번째 악장입니다. 삼손은 딘나로 가서 블레셋 소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14:1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딘나로 내려가 그곳에서 젊은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그를 데려와 내 아내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운동은 15:14-20에서 라못 레히 의 블레셋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 사사기 15:14-20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것을 읽게 됩니다. 자기를 묶은 줄을 끊고 당나귀 턱뼈를 취하여 천 명을 쳐죽이니라 그가 여호와께 말하여 가로되 내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의 나귀를 만들었고 당신 종에게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장은 라못 레히에서의 학살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비. 2악장 2악장은 사사기 16:1에서 삼손이 가사로 가서 음녀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운동은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둥을 부수고 죽을 때 더 많이 죽였습니다(사사기 16:30). “삼손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라 하더니” 그가 온 힘을 다해 진군하매 성전이 통치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무너지니라. 그래서 그는 살아 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사기 13:25과 16:31에서 소라 와 에스다울 에 대한 언급은 이 두 가지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야기 구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문학적 특징일 뿐입니다. 13장 25절에 “ 그가 소라 와 에스 다울 사이 마하네 단 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시니라 ” Zorah 와 Eshtaol 사이의 참조를 유지하십시오 . 16장 31절 끝에 “ 그들이 그를 데려다가 소라 와 에스다울 사이에 장사하였더라 ” . 따라서 Zorah 와 Eshtaol 은 14장부터 16장 끝까지의 구절을 묶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그들은 삼손 이야기에서 이 두 움직임에 묶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 대한 언급도 전체 이야기의 틀을 이룹니다. 사사기 13장 2절의 이야기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마노아라는 소라 사람 ” 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 전체 이야기의 끝에 있는 16:31로 이동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들은 내러티브의 내부 구조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내러티브에서 세 가지 움직임에 대해 좋은 사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씨. 삼손과 나실인의 서원 그런 다음 “나실인 삼손” 이라고 덧붙입니다. 나실인은 신성한 결정에 따라 삼손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그의 탄생이 발표된 13장으로 돌아가십시오.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이는 나실인이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 그가 이스라엘을 손에서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 그러므로 그는 출생부터 평생 동안 나실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는 자발적인 나실인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간 동안 자발적인 서약인 나실인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의 상황은 자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과 다릅니다. 그는 자발적 서약에 의한 나실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나실인입니다. 헌신의 기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입니다. 그가 풀려났을 때 나실인의

서원이 끝난 방식인 머리카락만 희생된 것이 아니라 삼손 자신, 그의 온 인격이 바쳐졌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삼손은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되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는 시체를 만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는 나실인의 모든 규정에 반대합니다. 사사기 16:17에서 그는 말합니다 .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여느 사람과 같이 약하게 되리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되라” 는 마지막 문구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것은 삼손이 다른 사람과 같기를 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암시합니다. 야훼는 그가 마침내 그의 소명을 성취할 곳으로 그를 옮기게 할 만큼만 그에게서 물러났다 . 그는 사로잡혀 눈이 멀었고 블레셋 성전으로 끌려갔습니다.

디. 이스라엘 이야기의 요약으로서의 삼손의 이야기 “Samson Agonistes”에서 John Milton은 삼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우리 땅의 거울이여.” 그리고 Barry Webb은 Milton이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가 기능하는 전체 방식의 측면에서 옳다고 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며 우리를 위해 한 사람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Webb의 논제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거룩한 사람이었듯이 이스라엘도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출 19:6). 삼손이 다른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좇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방 신들을 좇았습니다. 삼손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사기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눈이 멀고 가자의 쓰라린 고통에 넘겨져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빌론에서 포로라는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Webb이 제안하는 것은 삼손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자형. 에필로그 - 삼손 이야기와 연결된 이중결론 에필로그에는 이중 서론이 있듯이 사사기에 대한 이중결론이 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고 합니다. Webb이 주장하는 것은 Samson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책의 구조상 삼손의 이야기는 에필로그로 이어진다. 에필로그 직전에 나옵니다. 그것은 책에 나오는 주요 심사 위원들의 이야기 중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에게 이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려 할 때 “삼손의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동족이나 우리 백성 중에 마땅한 여자가 있지 아니하냐” 고 했습니다. 할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하러 가야 합니까? 그러나 Samson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녀를 데려오라’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구: NIV는 “She’s the right one for me.”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녀는 내 눈에 선하다” 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와 같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책의 구조에서 삼손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일을 하는 에필로그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한 일입니다.

구원자이자 구세주 삼손. 사사기 16:23-24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사로잡아 다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백성이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여 이르되 우리 땅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를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이 셴다 하였노라 하였더라 신; 그러나 Webb이 지적한 것처럼 여기에 이야기의 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삼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분은 그들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이시다. 따라서 삼손이 그들의 손에 들어갔다고 해서 결국 그들의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주요 문제:1. 야훼와 신들의 경쟁; 여호와와 주권과 자유

이 책에는 두 가지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충성을 놓고 야훼와 다른 신들 사이의 경쟁입니다. 삼손과 함께라면 승리는 결정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삼손의 죽음은 다른 신들은 전혀 신이 아니며 야훼만이 이스라엘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야훼의 주권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Othniel을 제외한 모든

구세주 판사는 Webb이 어떤 식 으로든 “가능성이없는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참 하나님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어지럽히는 방식으로 행하시며, 삼손의 이야기는 그 사실에 대한 저자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2. 맺음말 - 사제의 왕국 맺음말 : 여기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6절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됩니다. 베드로는 출애굽기 19:5-6을 거의 인용하지 않고 그것을 새 계약의 백성에게 적용합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Webb이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온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구약의 근본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신약 백성 사이의 이러한 연속성 때문에 우리가 삼손에게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합니다.” 즉, 삼손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라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도전은 우리가

부르심으로 성도라면 우리의 부르심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3. 믿음의 본질 둘째,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옵니다. “ 그는 그 장에서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입니다 . 그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세상과 자신의 존재 뒤에 서 있는 위대한 실재는 그가 그의 종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읽은 사사기 15:18에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큰 승리를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고 이번에 우리는 그가 신실함을 발견합니다. 삼손의 최고의 순간은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때에는 그는 좋은 예가 아니라 나쁜 예입니다.”

4.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으키신 인물의 비유

셋째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으키신 인물 또는 인물이 여기 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과 유사한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탄생은 천사에 의해 알려지고

그의 잉태는 기적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인들이 사사기 15:12에서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구원 사업은 그의 죽음, 즉 그가 다곤을 무너뜨리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기초를 놓는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인물에서 우리는 구약의 다른 어느 곳보다 앞으로 올 일의 모양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믿음의 본보기인 고의에 대한 단순한 경고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구세주의 선구자이며, 어떤 면에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가리키며 그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저는 Webb이 삼손과 관련된 이러한 어려운 내러티브 중 일부에서 오늘날의 중요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지적함으로써 여기서 우리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4명의 사사들 이제 잠시 후에 마치겠습니다. 저는 6명의 주요 판사 중 4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네 사람은 히브리서 11:32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서 읽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나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언급된 네 명의 사사, 즉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영웅의 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심각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자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에게 도전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개인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Webb은 다시 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사사기 시대의 영적, 도덕적 타락 사사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요에서 4.로 넘어가겠습니다. 4. “예증된 사사 시대의 영적 도덕적 타락”
 입니다. 17-21장입니다. 이것은 이중 서론을 반영하는 이중 결론입니다.
 우리는 책의 끝에 첨부된 두 개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것들은 4a입니다. 4b.
 4a는 “미가의 사적인 성소에서 우상과 제사장들이 약탈당함, 사사기 17-18장
 .” 입니다. 그리고 4b는 “레위 사람의 첩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베냐민과의 내전 이야기” 입니다. 사사기 19-21장입니다.

책 말미에 나오는 이 두 이야기는 어느 재판관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들의 목적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정복 세대 이후에
 얼마나 빨리 종교적 타락이 자리를 잡았고 백성들이 언약에서 돌아섰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그 진술을 네 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때는 중앙의 공권력이 없었고, 그럴 때 백성들은

언약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 무정부 상태가 이 두 이야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이야기는 종교적 배교를 설명하고 다른 이야기는 도덕적 타락을 설명합니다.

1. 종교적 배교에 초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종교적 배교에 대한 초점”입니다. 그것은 미가의 개인 성소, 우상,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아래 주어진 깨지기 쉬운 소유물에서 단 지파의 이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장소를 찾고 싶었고 사람들을 보내 어디로 이사할지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극복으로 갑니다. 사사기 18장 7절을 보십시오: “ 그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 에 이르러 거기서 백성이 시돈 사람과 같이 순전히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은 이곳이 단 사람들이 이사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18장 14절에 “ 라이스 땅을 정탐한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는 집 중 하나에는 에봇이 있고 다른 집에는 드라빔, 조각한 신상, 주조한 우상이냐? ” 그래서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젊은 레위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들이 그에게 문안하고 이 집에 들어가서(18절) 에봇과 신상과 다른 드라빔을 취하고 그들은 그곳의 사제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은밀한 성소에서 미가에게서 이 우상들을 취하여 떠나갈 때에 단 지파 사람들이 외치매 단 자손이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네 신을 부르느냐 싸울 남자?’ 그가 대답하되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나의 제사장을 취하고 갔느니라. 나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불법적인 개인 성소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우상들을 취합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나서 묻습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27절을 읽 습니다 . 그들은 칼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성을 중건하여 거기 거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강탈당한 이 개인 성소에서 종교적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 내전으로 끝난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의 첩의 성적 학대와 살인으로 촉발된 내전으로 끝났습니다 . 나는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학대에 대한 잔인한 이야기이며, 베냐민 지파는 이 첩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에 의해 거의 전멸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 암울한 시기에 언약에서 돌아섰을 때 초래된 혼돈의 어떤 것을 보여줍니다.

Andrea Mastrangelo와 Dominique Gobeil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Elizabeth Fisher

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가 다시 설명함